

이달의 어항 ④6 - 경기도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에 위치한 양포항

# 신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일출의 명소, 양포항

## 밤에는 유려한 달빛을 볼 수 있어



여름의 막바지에 늦더위가 기승이다. 해수욕장도 폐장일이 속속들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덥긴 더운 모양이다. 불볕더위를 피해 새로이 관광은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면 참고해볼만한 곳이 있다. 바로 양포항이다.

경기도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에 위치한 양포항은 남북으로 연결된 감포-구룡간의 도로와 양포에서 포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가 주변에 구룡포 해수욕장, 오어사, 일월지, 장기읍성 등 문화·관광지가 골고루 분포된 곳이라는 장점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말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알찬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장소라 할 수 있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양포항은 1985년 기본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1989년 기본시설을 완공한 후 1996년 방파제 보강계획을 수립. 2002년 해안침식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 방파제 700m, 방파제 보강 1식, 방사제 300m(잔량 250m), 물양장 720m, 가호안 230m가 완공된 상태이고, 호안 50m, 선양장 30m를 남겨둔 상태이다.

수산현황은 전업 502가구 1,691명, 겸업 152가구 598명, 지방어선 94척이 있으며, 방어, 문어, 가자미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은 1,769MT이다.

♣ **가볼만한 곳**-양포항의 주변관광지로는 구룡포 해수욕장, 장기읍성, 오어사(吾魚寺), 영일 일월지(迎日日月池)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장기읍성(사적 제386호)은 동해안을 지키는 장기지방의 중요한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읍성 내의 모든 관아 등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단지 향교만이 이 고장 주민들에 의해 복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곳은 벽지로 취급되어 유배지로서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송시열을 기리기 위해서 죽림서원이 세워지기도 했다.

성(城)으로서는 딱히 볼 것이 없지만 꼭대기에 올라서면 괜찮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다. 장기읍성에서 바라본 장기면과 동해바다는 꽤 근사한 경치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9월 이맘때면 제대로 여물기 시작한 황금빛 곡식들이 펼쳐진 너른 들과 그 너머로 살며시 보이는 파아란 바다



는 보는 이의 마음도 배부르게 할 만큼 푸근한 풍경이다.

오어사는 신라 26대 진평왕(579~632)대에 창건된 사찰로 신라 4대 조사(원효, 의상, 자장, 혜공)를 배출한 성지이다. 이곳은 현재 '천년신비의 방생도량 오어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곳인데 그 유래가 있다. 당초 오어사는 향사사(恒沙寺)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 법력(法力)으로 개천의 고기를 생환토록 시합을 하였는데 그 중 한 마리는 살지 못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힘차게 헤엄치는지라, 그 고기가 서로 자기가 살린 고기라고 하여 '나 오(吾)', '고기 어(魚)' 자를 써서 오어사(吾魚

寺)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은 절이지만 바로 옆 저수지와 어우러진 주변 풍경은 아름답다. 운무가 펼쳐진 호수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어우러져 황홀감을 자아낸다. 오어사의 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려면 오어사를 지나 오어사 뒷산인 운제산으로 조금 올라가야 한다. 좁은 등산로를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오어지와 어우러진 오어사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 큰 사찰도 아니고 유물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운제산 등산로에서 바라보는 오어사의 풍경은 놓치기 아까운 풍경이다.

이 외에도 영일 일월지를 소개할 수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의 설화를 낳은 옛터인 일월지는 일제 침략 전까지 이 부근에는 신라시대부터 해와 달에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어서 매년 9월 중앙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일제 침략 후 철거되었다 한다. 또 일월지 앞 독 중앙에는 일월지 사적비가 있는데, 이곳도 일제 침략 후 일제가 철거시켰던 것을 1992년 3월 영일군의 지원으로 주변을 정화하면서 다시 건립하였다. 현재 일월지는 군부대 내에 있어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이 설화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우수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희망적인 정서문화로 승화시키고자 일월사당을 복원하고, 매년 10월에 천지신명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먹거리**-양포항의 먹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묵은 별미 중의 별미이다. 우묵가사리의 해조를 넣고 끓인 후 한천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식혀서 굳힌 우묵은 맛도 그만이지만 열량으로 흡수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고 비만을 방지하는 등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 **가는 길**

- 포항(시내) - 포철 - 청림 삼거리 - (929번 지방도 이용) - 오천 - 장기 - 양포
- 지역 내 대중교통 : 울산에서 포항행 버스 중 감포, 양포를 경유하는 버스 이용 포항종합터미널(시내버스)에서 감포행 시내버스 이용, 양포에서 하차